

[부활, 우리의 소망 2] -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장선철 편집국장 / 1996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천지를 가를 듯한 광음으로 찬송이 이어진다. 큰 무리들이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하소서」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질러 찬송한다. 겉옷까지 퍼든 그들의 손과 손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로 터져나고 있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구름처럼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성전에 뿌려졌던 당시, 제사장들이 헤아린 유월절 어린 양의 수는 최소 25만 6천 5백여 마리였다고 한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일행들의 최소한의 수가 10명에서 20명이 되었다고 하니 유월절 순례자의 수만 최소한 2백50 ~ 5백10여만명이 넘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다. 이들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 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예수와 함께 있었거나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던 무리들이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듣고, ‘육의 떡’과 영의 떡’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자들이었다.

귀신을 쫓으며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해 했던 무리들이었다.

‘드디어 예수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얼마나 기다렸던가.

‘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멍에를 벗게 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으셨다. 전시에 타는 「말」 대신 왕들이 평화시에 댔던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투사로서의 메시아」를 단호히 거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이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슥 9 : 9)

「종교의 탈」을 벗겨 버리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계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혁명을 선포하길 기대했다. 유대의 해방을 간구했다. 눈 앞에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성전으로 가시는 일이었다. 때가 저물 때까지 성전을 둘러 보시며 다음날 행하실 일을 준비하셨다.

다음날,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으로 바삐 발걸음을 옮기셨다. 성전의 뜰안에 들어서 시기가 무섭게 거기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 모두를 밖으로 몰아 내셨다.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들을 특정한 동전으로 바꾸길 원하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환전해주어 폭리를 취하는 자들의 상과 감사와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다. 나아가 성전 안을 가로 질러 물건을 실어 나르지도 못하게 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마 21 : 13)

‘만민의 기도하는 집’ (사 56 : 7) 이어야 할 성전이 ‘도적의 굴혈’ (렘 7 : 11)로 변해 버렸음에 하나님 당신의 집에서 일체의 악을 쓸어 버리시는 「심판」을 행하신 것이다. 이 집이 오직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전정화」의 사건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정화」의 사건을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실천하셨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 6 : 6)

환전상들과 희생제물을 파는 상인들을 몰아 내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서 당신 앞으로 나아온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다.

“주님, 제가 못 박았나이다. ”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 . . ”

오늘 이 땅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말씀을 전하는 집회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적도 나타난다. 어김없이 그곳에서도 큰 무리들의 찬송이 넘쳐 난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으

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오늘날 이 땅의 성전이 정결한가를 살펴야 한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과연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연 세마포를 입은 「순결한 성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아. 주님, 나귀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 걸옷을 벗어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 . .’ 찬송하는 무리 속에 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전에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환전하며 비둘기를 파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불과 몇일 후 몇일 밤 낮이 지나지 않아 『바라바를 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무리들 속에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 뒤에 감추인 죄인 중에 죄인이로소이다. 용서하십시오서. ‘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